팀 기대에 부응한 두산 곽빈·KIA 네일·SSG 앤더슨… 진가 보여준 에이스

곽빈, 키움전 $7\frac{2}{3}$이닝 2실점… 시즌 3번째 등판서 첫 승

네일, NC전 6회 2사까지 노히트… $6\frac{2}{3}$이닝 1실점 쾌투

앤더슨은 롯데 상대로 7이닝 11K 무실점… SSG 1-0 승리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토종 에이스 곽빈, KIA 타이거즈 1선발 제임스 네일, SSG 랜더스 외국인 에이스의 드류 앤더슨 등 각 팀을 대표하는 선발 투수들이 호투하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곽빈은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frac{2}{3}$이닝 6피안타(1홈런) 무사사구 3탈삼진 2실점으로 역투했다.

5회까지 무실점 행진을 벌이던 곽빈은 팀이 3-0으로 앞선 6회초 1사 1루에서 임지열에게 투런포를 허용했지만, 오선진과 스톤 개랫을 각각 루킹 삼진, 3루수 뜬공으로 처리해 이닝을 마무리했다.

7회초를 실점 없이 마친 곽빈은 8회초에도 아웃카운트 2개를 책임지면서 제 몫을 다했다. 곽빈의 뒤를 이은 마무리 투수 김택연이 $1\frac{1}{3}$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며 곽빈은 시즌 세 번째 등판에서 첫 승을 올렸다.

지난해 15승(9패)을 따내며 원태인(삼성 라이온즈)과 함께 공동 다승왕을 차지한 곽빈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내복사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으며 6월에서야 시즌을 시작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 3일 잠실 KIA전에서 3이닝 3실점에 그쳤던 곽빈은 8일 잠실 롯데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나아진 면모를 보였고, 세 번째 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 플러스(선발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며 장상 궤도에 올랐다.

네일 역시 곽빈 못지않은 인상적인 투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네일은 창원 NC파크에서 벌어진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6\frac{2}{3}$이닝을 1피안타 2사사구 9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냈다. 이날 네일은 6회 2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는 등 NC 타선을 압도했다. 1회 박민우를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 포일로 내보낸 걸 제외하면 완벽에 가까운 투구였다.

네일은 6회말 2사 이후 김주원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해 첫 피안타를 남겼고, 후속 타자 권희동을 상대로 몸에 맞는 공을 기록했으나 박민우를 2루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팀이 4-0으로 리드한 7회말 2사 1루에서 마운드를 내려간 네일은 좌완 불펜 이준영이 김휘집에게 2점 홈런을 얻어맞아 실점을 떠안았지만, 이후 불펜진이 점수를 헌납하지 않으며 승리를 수확했다.

지난해 26경기에서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으로 맹활약한 네일은 올 시즌에도 15경기에 출전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57의 성적을 거두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SSG의 핵심 선발 투수 앤더슨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위력적인 공을 뿌렸다. 7회까지 안타 5개와 볼넷 1개만 내줬고, 11개의 삼진을 솎아내면서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장단 6안타에 머무른 SSG 타선은 1점만 뽑아내고도 앤더슨의 쾌투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2024시즌 로버트 더거의 대체 선수로 SSG에 합류해 24경기 11승 3패 평균자책점 3.89를 기록한 앤더슨은 시즌 종료 후 재계약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 한층 강력해진 구위를 뽐내고 있다.

앤더슨은 14경기에서 8차례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하는 등 5승 3패 평균자책점 2.09의 호성적을 냈다. /뉴시스

수영 이은지, 여자 배영 100m 1분 벽 허물었다… 한국 신기록

혼계영 400m서 첫 영자 구간 기록 59초56

한국 여자 배영 간판 이은지(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배영 1분의 벽을 허물고 한국 기록을 경신했다.

이은지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혼계영 400m 결승에서 배영 구간을 59초56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네 명의 선수가 배영~평영~접영~자유형 순서대로 100m씩 맡아서 경기하는 단체전인 혼계영 400m에서 첫 영자(배영)의 구간 기록은 국제연맹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데, 이은지가 59초56으로 여자 배영 100m 한국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한국기록은 이은지가 지난 2021년 5월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과 2022 항저우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 입상할 당시를 포함해 이미 두 차례 기록했던 1분00초03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0.47초 앞당기며 또 한 번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이은지는 이날 한국기록 경신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도 받았다.

이은지는 경기 후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1분 벽을 허물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지난 3월에 있던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기록이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드디어 59초대에 진입해서 너무 기쁘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의 격려와 따듯한 말이 생각나서 울컥하고 감사했다"고 전했다.

2022, 2023년 두 번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경험한 이은지는 올해 싱가포르 대신 독일로 향해 생애 첫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다.

그는 "25학번 대학생이 된 만큼, 대학 시절에만 겪을 수 있는 유니버시아드에서의 경험이 욕심났다"며 "확실히 학생 선수일 때보다 몸 관리도 더 잘하게 되고, 수영에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수영대회에서 즐겁게 좋은 결실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구례군, '2025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총 700여명 모집, 만 18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

전남 구례군은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2025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원봉사자는 선수 현장등록 지원, 안내소 운영지원, 읍면 거점 보급소 운영지원, 통역 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본 교육과 봉사시간 인정, 단체보험 적용, 유니폼 제공, 식사 및 간식 등이 제공된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온라인 및 구례군 스포츠산업과 방문, 우편, 팩스(061-780-2199)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스포츠산업과(☎061-780-2748)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제1회 영광굴비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열정, 영광에 모인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제1회 영광굴비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영광군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시·군에서 약 400여 명의 탁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으로, 전국 탁구 동호인 상호간 친선 교류 및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단체전과 개인복식 경기는 각각 남자 1, 2부/여자부/혼성 1, 2부 총 5개 부문, 개인단식은 남자 1~4부/여자 1, 2부/통합부/초심부 총 8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2025년 6월 21일까지 해당 시·도 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탁구 전지훈련과 현정화배 천년의 빛 영광 전국오픈 탁구대회에 이어 영광굴비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군이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교류와 실력 향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라며 "앞으로도 탁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